

일주문

35사단 장병수계법회
완주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은 3월 15일 35사단 호국 총경사 법당에서 열린 수계법회에서 신병교육대 장병 300여명에게 계를 설했다.

방송포교 활성화 기부금 전달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3월 25일 불법전승과 방송포교 활성화를 위한 1억 3천만 원의 기부금을 불교방송에 전달했다.

스리랑카 보리수 기증받아
서울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3월 25일 스리랑카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을 예방하고 스리랑카 국보 마하 보리수 묘목을 직접 기증받았다.

만일염불 1차기도 400일 행사
고양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은 3월 29일 경내 설법전에서 만일염불 1차기도 400일을 맞아 달라이라마 제자 청전 스님 초청 일요법회를 개최했다.

제5회 능가산 개암사 산신대제
부안 개암사 주지 재안 스님은 4월 4일 오전 10시 부안 개암사 경내 산신각에서 제5회 능가산 개암사 산신대제를 개최한다.

봉녕사 제1회 한마음축제
수원 봉녕사 주지 자연 스님은 4월 18일 경기대 실내체육관에서 봉녕사 소임자 스님 및 신도들이 함께하는 '제1회 한마음축제'를 개최한다.

스리랑카 사리 이운법회
울진 봉영사 주지 일운 스님은 3월 22일 스리랑카 정부지원을 라자마하 사원 불사리를 이운해 설법전에 봉안했다.

사리진건 특별법회 및 음악회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4월 12일 오전 11시부터 사리진건 특별법회 및 다유기 음악회를 개최한다.

금강경 산림법회
대구 은적사 주지 원일 스님은 4월 3일~5월 22일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은적사 대웅전에서 '금강경 산림법회'를 연다. (053)653-1572

8인 스님 초청 열반절 특별법회
대구 법암사 주지 실상 스님은 4월 3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열반절 8인 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개최한다. (053)766-3747

“한국불교 사찰 경관에 반했어요”

33관음성지 순례 완주자
이토 마사노리, 박숙자, 신말생

한국의 관음신앙을 느낄 수 있는 사찰 33곳을 일본인과 재일교포가 모두 순례해 화제다. 일본인 이토 마사노리(61), 박숙자(62), 신말생(76) 씨가 그 주인공.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 이하 문화사업단)은 3월 23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2층 발우공양 내실에서 이토 씨 등 3명에게 33관음성지순례 완료 증서를 수여했다.

“한국33관음성지 연계 전통사찰순례”는 문화사업단과 한국관광공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내 4대 관음성지인 강화도 보문사, 양양 낙산사, 여수 향일암, 남해 보리암을 비롯해 전국 33곳의 관음사찰을 순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이 순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한국 불교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이토 씨는 “일본은 순례문화가 일상화 돼 있다”면서 “불교 순례 프로그램을 찾던 중 한국불교에도 관음신앙을 중심으로 한 순례 코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일교포인 박숙자 씨와 신말생 씨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호기심에서 시작한 한국불교 관음성지 순례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뤄졌다. 한국에는 총 4회 방문했다. 2년 여의 시간 동안 한국 사찰에 방문하며 느낀 점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세 명은 모두 “하나 같이 경관이 수려하다”고 엄지손가락을



한국불교 33관음성지 순례를 완료한 일본인들. 사진 왼쪽부터 재일교포 박숙자, 신말생 씨와 일본인 이토 마사노리 씨.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33곳 관음신앙 사찰 순례 “다음에도 또 찾고 싶어요”

치켜세웠다.

신 씨는 “여수 향일암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서 “바위 사이에 기암 절벽에 사찰이 있을 수 있다니 신기했고 경관도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

박 씨는 속리산 법주사를 꼽았다. 산 속에 자리한 대찰과 대불의 위용이 매력적이었다고 했다. 이토 씨도 오대산 월정사가 아름답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관음성지 순례가 다시 오고 싶고, 주위에도 추천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일본 내 홍보가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꼽았다. 또한 산악 사찰이 다보니 연로한 사람이 오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토 씨는 “개인적으로 한국 관음성지 순례를 일본인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일본 내 홍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 일본은 순례가 생활화돼 있고, 유력 언론에 시코쿠 등의 순례 광고가 늘 실린다. 하지만 한국불교 순례 프로그램은 거의 접하지 못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0대 노구에도 순례를 완료한 신 씨는 “일본 순례객들도 나이드신 분들이 많다. 산속 위의 사찰 계단을 오르는데 불편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동에 불편함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은 순례를 완료한 3명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관음성지 33곳을 순례하는 것은 한국 불자들도 힘든 일”이라며 “일본의 불자들이 한국불교 성지 33곳의 순례를 완료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79@hyunbul.com

“불교시민사회 인재 양성 나설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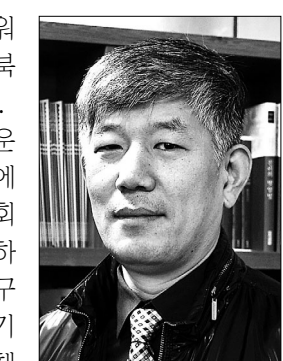
유지원 불시넷 신임 운영위원장

지난 3월 18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신임 운영위원장에 유지원 전북 불교네트워크 대표(사진)를 선출했다.

유 운영위원장은 불교계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기존의 기대, 즉 불교 종단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 비판 외에도 사회 변화에 발맞춰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에도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구성원 다수의 공의를 모아 불교 비판 기능을 넘어서 불교시민사회운동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발족된 후 지난 4년의 성과로서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꼽으며 “시민사회가 사회적 경제영역, 인간 중심의 진보운동 등 새로운 운동과 대안 제시에 나서고 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역시 공의를 모아 새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NGO 역량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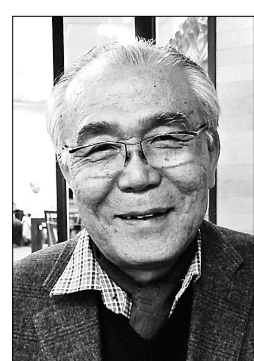
“캄보디아 종합고 건립에 박차”

박세동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해외봉사팀 대표

“3년전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에 활동중인 아내를 따라 캄보디아를 방문했다가 펠로디봉 현지의 열악한 현실을 목격하고 봉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는 해외봉사팀 대표를 맡아 봉사의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해외봉사팀 박세동 대표(67·세양산업 대표이사) <사진>는 2월 28일~3월 1일 회원들과 함께 라오스 펠로디봉 마을을 방문 무를 기증, 학교 시설 보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돌아왔다. 앞으로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은 농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종합고등학교 건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농업과 상업 공업을 아우를 수 있는 고등학교를 위해 회원들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은 △화장실 없는 학교에 화장실 건립 지원 △학교에 유실수 지원 △우물건립 확대 △대학생 재능개발 △대학생 농촌봉사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혜숙 기자

법안 스님, 동국대에 장학기금 전달



부산 동국선원 선원장 법안 스님은 3월 25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에 장학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 법안 스님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내 동국선원 장학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법안 스님은 “이번 장학기금 전달로 다른 사찰 및 스님, 불자들이 불교종립 대학인 동국대의 발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안 스님은 현재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화장으로 지난 2009년부터 불교인재양성 장학기금과 선선터전립기금 등으로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기부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불교포럼, 2015년 첫 행사 성료



사회 각 분야 재가불자 지도자 모임인 불교포럼은 3월 25일 서울 그랜드엠버서더 호텔에서 조준희 YTN사장을 초청해 2015년 첫 포럼 행사를 열었다.

조준희 YTN사장은 강연에서 CEO의 올바른 경영전략과 자신의 기업 철학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포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종책특보단장 정법 스님, 김동건 불교포럼 상임대표, 주호영, 이한성, 황인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대구 대관음사 전법사 수여식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는 3월 23일 4층 옥불보전에서 전법사·교법사 수여식을 개최했다.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눠 진행된 수여식에는 대관음사 주지 수진 스님과 배선혜 총동문화장을 비롯한 재학생과 졸업생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진 스님은 법문을 통해 “앞으로도 바른 깨달음에 성취와 온 세상의 정토 구현을 위해 정법 교화에 힘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Advertisement for 'On-Heat Relief' (온열복대) health products.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product, a list of symptoms it treats (back pain, joint pain, etc.),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manufacturer. The text emphasizes its effectiveness and safety.